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도전과 성장기회

김진억 수석담당역

■ 미국 보험정책연구소(Center for Insurance Policy and Research, CIPR)는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위협 요인과 기회요인에 대해 미국의 주요 생명보험회사 경영진들과 인터뷰¹⁾를 진행함.

- 인터뷰 대상은 조직별로는 상호회사와 주식회사, 규모별로는 대형사, 중형사, 전문보험회사의 일부 CEO를 포함한 임원진임.
- 인터뷰는 보험산업이 직면하는 최근의 도전과 미래 성장기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으며, 이중 중요 포인트를 발췌하여 정리함.

1. 위협 요인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보험산업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환경의 악화를 지목했으며, 상호회사 경영진들은 1990년대 후반의 탈상호화(Demutualization)를 가장 구조적인 진전으로 지적함.

- 지속적인 저금리와 시장변동성은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되며 특히 저금리는 연금과 장기간병보험 등 장기상품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함.
- 금융위기로 인해 리스크, 시장변동성 그리고 유동성을 검토하는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또한 인구고령화를 또 다른 도전으로 지적하였고, 고령화로 퇴직 후 소득이 중요해 졌으나 퇴직상품 가입률이나 평균 적립자산 등 은퇴 준비상황은 몹시 열악한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연금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복잡해졌고 변동성, 복잡성, 투명성의 극복과 투자자 친화적 상품개발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됨.

1) CIPR Newsletter(January 2014).

2.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한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리스크경감을 최선의 대응이라고 평가함.

- 금융위기 이전에 만연했던 리스크 무시현상에 대해 논의하였고, 리스크환경에 대한 재평가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전에는 리스크의 파급효과와 발생정도 등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음을 언급
- 금융위기 이후 단계적으로 리스크관리방식을 개선하면서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자방식을 변경했으며, 보험상품의 리스크요인을 제거하고 시장리스크에 노출된 상품에 대해서는 리스크평가를 반영하여 자본을 확충
- 또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는데 상호회사의 경우 이전에는 장기 건전성에 우선하여 분석주기가 길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분석기법을 향상하였으며 분석주기도 단축함.

3. 시장 기회 요인

■ 저금리 지속으로 연금상품시장의 기회요인은 줄어들었고 생존급부와 변액연금상품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특히 생존급부 보장 특약을 통해 안정적 퇴직소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장 특약 제공과 동시에 보장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상품개발이 진행됨.
-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 리스크로 인해 시장 비중이 큰 보증유선결합 유니버설생명보험²⁾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대신 특정 채널 또는 특정 고객 군에 특화된 정기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연금상품에서 있어서는 공격적이며, 전통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변함.
- 새로운 기회로서 기업 퇴직상품시장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 많이 투자되지만 수익성도 매우 큰 시장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2) 보험료변경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변동되는 유니버설 보험에 보증유선이 결합된 정기보험상품.

4. 보험 신상품 추세

■ 대부분의 경영진은 연금분야를 신상품 출시분야로 지목하였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보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부는 장기상품을 중요 신상품 추세로 지목함.

- 변액연금 분야에서 보험회사들은 미래 소득 보장을 통한 상품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 변액연금 상품에 다양하고 복잡한 보장특약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최근의 혁신적인 상품은 성과연동 거치연금(Contingent Deferred Annuity, CDA)³⁾이지만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증조건을 제한하고 있고, 대신 지수 유니버설생명보험상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장기간병보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 하며 판매되고 있지만 상품가격에 대한 가정 및 미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매를 줄이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있음

■ 향후 상품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상품 개발에 주목함.

- 향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 가격결정에 있어 사망률리스크나 장수리스크에 집중하여 시장변동성과 저금리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형 생명보험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기업성 시장임.
 - 다수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주요 회사들의 연금부채를 인수하고 있고 확정급부형 연금에 대한 리스크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시장규모가 커질 것임.

5. 전사적 리스크관리

■ 전사적 위험관리(ERM)의 중요성은 예외 없이 강조되었으며 향후에도 전사적 위험관리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설정할 것이라고 함.

- ERM의 기본 틀은 다양한 리스크를 포괄하지만 최근 운영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경영, 법규준수, 세금, 고객에 대한 보다 공식화된 검토가 필요한 상황

3) Contingent Deferred Annuities(CDAs)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보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연금상품으로 변액연금에 보증 생존급부 특약을 추가한 것과 유사함.

6. 원칙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 원칙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Principle-Based Reserving, PBR)⁴⁾의 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도입이 적극적인 반면 중소형사, 특히 보장이 적은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은 소극적임.
- PBR이 도입될 경우 보다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일부 보험회사는 PBR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과 함께 자본민감도를 분석할 도구이지만 PBR도입을 위해서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기술적 기반도 필요해 소형 보험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일부 선도적 연금보험회사는 PBR실시와 관련해 많은 투자가 필요했음을 지적하고 PBR도입으로 보험상품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보험시장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정보 기술

- 정보기술과 모바일 및 웹기반 기술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보험산업, 보험회사, 고객의 전반적인 상품개발방식, 거래방식, 마케팅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W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니즈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장수리스크관련 상품의 개발과 이와 관련한 금리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니즈와 거시경제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고령화와 기술의 진보가 상품수요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상품설계 및 판매가 핵심요소임을 지적함.
 - 향후 노후보장 니즈의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리스크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품개발과 관리에 있어 금리리스크에 유의해야 될 것임.

(CIPR)

4) 원칙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Principle-Based Reserving)은 기존 규정에 정해진 공식을 기반으로 한 준비금산출 방식이 아닌 향후 경제상황 전망과 보험회사의 경험률을 기초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임.